# 러시아 연해주(沿海州)지역의 고려인(高麗人)마을 만들기와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 우스리스크 우정마을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WooJeong Village of Maritime Province in Russia

## - Focused on WooJeong Village Ussuriysk -

김 승 근*

Kim, Seung-Keun

Abstract

Last deportation area was Maritime Province of Central Asia. The studied village is situated about 130㎞ west in Vladivostok. Central Asia has a lot of unfavorable conditions than other area and there is cold area. Such climate is hard to do agriculture. Therefore, koryo people's life was very hard. In this study, investigated koryo people's life who overcome bad climate and develops new agriculture. Also, whether koryo people keep farm village how, and make the village by some method.

Study finding following contents could know. Need specific to make village for fixing that is Koryo people's of Russia Maritime Province. Also, need governmental active support and support for village le ader's systematic upbringing and agriculture activation. Need agropolitics and various agricultures, stockb reeding educational programs construction.

키워드 : 연해주, 우정마을, 고려인마을, 마을 만들기

Keywords : Maritime Province in Russia, Woojeong Village, Koryo People, Village Form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세계 170여개 나라에 700만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나라로 한인들이 이주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이하 고려인)의 이민사가 가장 오래되어 2007년 현재 한인 러시아 이주 141번째 돌을 맞았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 일본, 미국, 남미, 유럽 그리고 동남아로 확산되었다.

141년 전에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고려인들은 연해주(沿海州)에서 자리를 잡고 농업유민으로서의 생활을 꾸려나갔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 때인 1937년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여 중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을 예측하고 1937년 8월 21일부로 극동변강의 국경지대로부터 고려인을 이주시키는 것에 대하여, 소련 공산당과 인민 의원 그리고 소베트(소비에트)의 결정으로 연해주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시키는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이에 앞서 스탈린에 의해 고려인 지도

* 정회원, 극동정보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자 2천여명이 처형되었고 1937년 10월에 화물차에 실려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벌판에 버려졌다. 이주 지역에 도착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빈 황무지를 일궈 농사를 지었고 소련의 붕괴 직전까지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서 농작물을 제일 많이 내는 농장이 고려인의 농장[1]이었다.

이후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토로이카 정책은 소련의 붕괴를 촉진시켰고 소비에트연방의 가맹 공화국들이 점차 떨어져 나가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러시아어를 국어로 사용하던 민족들은 독립과 함께 자기의 민족어를 국어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로만 말하고 교육받은 민족이었다. 해당 공화국의 독립과 함께 그 나라 민족어를 모르는 고려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 나라 말을 모르는 민족에게 사회적으로 배타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타민족을 내쫓는 국내 전쟁까지 발생되었다. 이에 전망이 없음을 이해한 고려인들은 그곳을 떠나 다시 러시아로 이주를 해야만 했다. 그들이 이주할 수 있는 곳이란 강제 이주 전에 부모들이 살았던 역사적 고향인 연해주였다. 다시 돌아온 고려인들은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터전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삶의 거주공간인 주거와 마을이 필요하게 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다시 찾은 연해주는 중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날씨가 매우 춥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후로는 과거처럼 농사를 지어 생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악조건의 기후를 극복하고 새로운 농법과 특성화를 통해 고려인들이 농촌을 어떻게 살리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운영하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러시아 연해주 미하일로프카군내에 자리한 우정마을로 한정한다. 이 마을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약 130㎞ 서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정식 명칭은 카레이스키 두르즈바 제레비냐(고려인 우정마을)이다.

## 2. 연해주와 우정마을의 일반 현황

### 2.1 연해주의 일반 현황

1990년대 초 소련의 해체 이후 연해주는 인구가 감소(백인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농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인은 2003년 현재 약3만-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해주의 현재 인구는 약210만 명이고, 이곳의 고려인 총 인구는 약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림 1. 연해주와 우정마을의 위치

최근 들어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땅을 임대할 때 한국은 50년, 중국과 일본은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1) '고려사람은 바위에 올려놔도 살아난다' 러시아에서 고려인을 비유하는 대표적인 속담이다. 초기정착, 독립운동지원, 강제이주, 구소련의 해체 후 다시 시작되는 방랑의 길, 험난했던 고려인 이주 140년사를 돌아보면 잡초처럼 다시 일어서는 고려인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점점 더 긴밀해져가는 한러관계, 동북아에서 식량과 에너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러시아 극동의 위상 속에서 이제 고려인은 '한국이나 러시아정부가 도와주어야 할 시혜의 대상' 이 아니라 21세기를 함께 열어갈 '대륙의 인도자' 가 되고 있다.

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지대에 놓여있고, 일본과는 사할린과의 영토분쟁으로 미묘한 사항에 따른 초치라고 생각된다. 이는 급속하게 어려워지고 있는 연해주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도모하고자하는 러시아의 정책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 2.2 우정마을의 일반 현황과 마을 만들기

우정마을은 우수리스크로부터 동북쪽으로 17㎞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8월부터 한국의 주택건설협회에서 1,000가구의 고려인 농업 정착촌을 건설할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IMF와 현지조사 부족 등 각종 어려움으로 30여 가구의 주택만 건설된 채 중단되었다. 2004년부터는 (사)동북아평화연대에서 본격적으로 우정마을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연해주 고려인 정착지원으로는 농업 중심센터, 문화센터, 게스트 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2)]

표 1. 연해주와 고려인(고려인 이주 141년)

| 이주 년도 | 이주 현황 |
|---|---|
| 1863 | 최초 13가구 농업 이민 |
| 1910-1930 | 의병, 독립운동 |
| 1923 | 재소 한인 공식 10여만 명 거주<br>(실제 25만 명 이상 거주) |
| 1937.9-11 | 스탈린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
| 1938-1953 | 16년간 탄압<br>(고려인-거주이전 제한, 언어, 교육 등) |
| 1990 초 | 소련 연방 해체<br>- 배타적 민족주의, 민족분쟁,<br>언어, 교육, 경제 환경 등 |
| 1990 - 2000 | 두 번의 정착 지원 사업 시도와 실패 |
| 2001-현재 |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적인 모델 창출로 나아감 |

2005년 현재 우정마을에는 33가정(러시아 6, 한국 2, 우즈베키스탄 5, 카자흐스탄 20)이 거주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30개동, 계사, 솔빈센터, 육묘장, 청국장 사업, 유기농 자연농법, 그루터기 농업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1) 우정마을

2004년부터 조성된 우정마을은 동북아평화연대의 자활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마을의 자생력과 생활터전의 기틀을 잡는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도는 우정마을 30여 가구의 자활기반과 마을기능 확보등 우정마을의 경험을 근간으로 기존의 농가인 끄레모바 마을을 좀더 효율적인 고려인 농업 정착을위한 모델로 조성하기 시작한 해였다.

그림 2. 고려인 우정마을 입구

또한 우정마을의 솔빈센터[3)]는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하여 약 400여명에 이르렀으며 시설도 이에 맞추어 센터의 기능도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다. 2004년 10월에는 25개동의 비닐하우스를 신설하여 성공의 궤도를 달리고 있는 유기농 농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에 맞추어 조기 영농을 위한 육묘장 건설을 2006년 1월에 시작하였다. 2005년 우정마을 자활 사업의 하나였던 청국장도 이제는 본 궤도에 올랐으며 2006년부터 메주, 고추장 등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과정에 있다.[4)]

#### 2) 끄레모바

새로운 농업 정착기지로 추진되고 있는 끄레모바는 2005년 5채의 주택을 구입하여 고려인 농업 희망 무주택 4가구를 입주시키고 비닐하우스 1개동씩을 보급하였으며 기존의 고려인

2) 동북아평화연대 홈페이지 참고
http://www.wekorean.or.kr

3) 솔빈센터는 동북아평화연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원봉사자들, 고려인마을 체험 프로그램 참여 여행자들,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 등의 지원자들에게 숙소 및 운영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4) 2006년 'KBS 6시 내 고향'에 소개되었다.

가정에 비닐하우스 1개동을 보급하였다. 2006년에는 이 가구 중 한 가구에 돼지 사육을 위한 시범돈사를 건축하였으며 한국의 여러 단체와 함께 30여 채의 주택을 구입하여 고려인 농업 희망 가구를 입주시키고 있다.

표 2. 우정마을과 끄레모바

| | 우정마을 | 끄레모바 |
|---|---|---|
| 마을 구성 | 새로운 부지에 조성 | 기존 러시아 마을에 빈집을 구입하여 입주 |
| 주 택 | 신축<br>(대한주택건설협회) | 개축, 리모델링<br>(자원봉사자에 의한 방법) |
| 운영 방법 | -공동체 운영 방법<br>-마을 리더 육성<br>-자활의 기반 구축 | -기존 러시아 마을 주민과의 연계<br>-동북아평화연대의 프로그램 지원<br>-개별 운영 발판 |

2006년에는 육묘단지와 비닐하우스 유기농 야채 생산단지, 자연농 돈사 실험에 의한 축사, 청국장 등 농산물 가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정마을과 끄레모바 두 마을의 약 60여 가구에 자립 자활 단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농업 고려인 시장도 만들어질 예정에 있다. 1999년부터 이주 초기 극빈자를 위해 진행하던 자매결연 프로그램은 현재 장학금, 병자와 노약자를 위한 극빈 지원, 러시아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고려인 무국적자의 러시아 국적회복을 위한 지원 등으로 나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이를 더욱 더 확대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3. 우정마을의 운영 실태

### 3.1 우정마을 농업지원 사업

#### 1) 우정마을 농업지원 프로그램

우정마을 농업지원 사업의 초기 프로그램은 말린 청국장, 비닐하우스 시범 영농을 확대·발전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것이었다. 말린 청국장 사업은 2006년 7월 월 600㎏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청국장 생산량을 연말까지 월 1,000㎏ 생산으로 증산시키고, 메주와 고추 등 다양한 농산물 가공을 시도하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지난 해 10월 보급된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토마토, 오이, 고추 등 우정마을 주민들에게 자연농업을 지도하고 보급할 계획에 있다. 또한 비닐하우스에 종자를 배급하기 위한 육묘장을 건축하고 말린 청국장 등 농산물 가공식품을 저장하기 위한 저온 저장고의 신축도 예정되어 있다. 기타 농업지원센터, 시범 양계장, 시범 돈사, 비닐하우스 추가 보급 등도 건축하고자 계획되어 있다. 또한 2차 가공품으로 고춧가루, 참기름 등 농산물 가공식품 실험 생산 및 시장 공급을 확대하며, 연해주 교민을 중심으로 한 자연농산품 보급 및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국장 건조장, 저온저장고, 육묘장 등 시설을 확충하고 끄레모바와 비닐하우스 40여동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을 우정마을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보다 활성화된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2) 우정마을의 시설 구축

(1) 청국장 가공을 위한 저온 저장고

2006년 10가구에서 월 600㎏의 청국장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끄레모바 농장 30㏊에 콩 생산을 주문하였고 이 중 1㏊는 자연농업으로 생산하여 그 수확물을 말린 청국장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2006년 3월부터 청국장 건조장, 저온저장고 시설의 건축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연내에 50평 규모의 청국장 가공 시설을 신설하여 청국장 생산량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2) 비닐하우스 보급 사업

현재 비닐하우스 25채가 시설 공사 중에 있고 비닐하우스 육묘 보급을 위한 육묘장이 건설되고 있다. 비닐하우스 영농 작물로는 토마토, 오이, 양상추, 고추,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매월 비닐하우스 영농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3. 철재와 목재로 만든 비닐하우스

향후 비닐하우스 40여 동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며, 2005년도 비닐하우스 자재비용을 회수(1동 당 400$)하여, 자재비 회수금은 비닐하우스 추가 구입비로 재투자되었다.

### 3) 2차 가공품 관련사업

2006년도 우정마을의 농업지원사업 일정은 2월에 청국장 품질 계량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고, 3월에 저온 저장고 시설공사를 하였으며, 4월에서 5월은 청국장 생산량(600kg)을 한국으로 반출하였다. 이는 생산을 통한 고려인 자활 및 소득과 연계할 수있는 사업의 초기진행 단계 프로그램이다. 6월에는 청국장 가공 시설을 완공하였고, 7월에서 10월에는 매월 100kg씩 청국장 생산을 늘렸으며, 11월에는 총 1,000kg의 청국장을 생산하였다.

그림4. 청국장 제조 및 발효 장비와 가공품

그러나 된장과 간장 만들기의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청국장이외의 다양한 2차 가공품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곧 고려인 정착을 위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정마을의 2006년도 농업지원사업의 자세한 일정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연해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차가버섯을 이용한 청국장개발은 건강을 생각하는 식품으로 개발·생산되고 있다.

표 3. 우정마을의 2006년도 농업지원사업 프로그램 일정

| 월 | 사 업 내 용 |
|---|---|
| 2 | – 차가버섯, 청국장 실험<br>– 청국장 품질 계량 및 생산량 증대 실험<br>– 육묘장 준공<br>– 된장, 간장 담그기<br>– 비닐하우스 시설공사<br>– 자연농법 농자재 만들기 |
| 3 | – 저온저장고 시설 공사<br>– 청국장 생산량 한국으로 반출<br>– 고추 빻는 기계 구입 |
| 4–5 | – 청국장 생산량 한국으로 반출<br>– 청국장 가공시설 시공 |
| 6 | – 청국장 가공시설 완공<br>– 청국장 증산 |
| 7–10 | – 매월 청국장 증산 |
| 11 | – 1년 총 1000kg의 청국장 생산 |

이렇게 생산된 말린 청국장은 한국으로 반출하여 (주)바리의 꿈에서 한국에 판매되고 수익금의 일부가 연해주 고려인 정착지원금에 쓰여질 예정이다.

### 4) 끄레모바 지원사업

연해주 지역의 농업희망 무주택 고려인들에게 주택을 보급하고 자연농법을 통한 자립 자활을 위해 추진 중인 끄레모바 주택 구입 사업은 2006년도 30여 채의 주택을 구입하여 고려인들을 입주시키고 우정마을과 더불어 농업 경제력을 향상시켜 자립 자활 체제를 구축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림5. 끄레모바 주택

끄레모바는 우정마을에서 북동쪽으로 25㎞ 떨어진 곳으로 제2의 우정마을로 건설하기 위해 기존의 끄레모바 마을 주택을 구입하여 농업 자립 자활을 희망하는 고려인 가정을 입주시켜 영농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4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입주세대는 비닐하우스 자재(5개동 분량)

를 보급하여 농업 생활력을 확보하였으며, 입주한 고려인 가정이 운영할 시범 돈사 시설도 건축 중에 있다. 최종적으로 시범 돈사는 마을 고려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3인 가구에 1돈사가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우정마을에서 자활에 성공한 고려인 중심으로 끄레모바 현지 주택을 20여 채 추가로 구입하여 희망하는 고려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3.2 솔빈센터의 운영 및 역할

#### 1) 솔빈센터의 개요

솔빈센터는 2005년 온돌 공사, 부엌 확장, 목욕탕 건설 등 시설을 발전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농활, 청년캠프, 민족교육투어 등 여러 한국 방문객이 방문하였고 이를 통한 수익이 창출되어 솔빈센터의 운영비를 일부 충당하였다.

우정마을 주민과 한국 방문객과의 교류의 장소로 솔빈센터가 활용되었고 어린이 한글교실(현재 4개반 운영), 러시아어 교실(한국사람 대상 1개반 운영), 놀이방, 공부방, 회의공간 등으로 사용되어 마을회관으로서의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 마을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지설을 확충하고 있다.

그림6. 솔빈문화센터

#### 2) 솔빈센터의 사업내용 및 일정

솔빈센터의 사업 목표는 주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방문객 편의 시설 확충, 한국 방문객 확대를 통한 운영경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솔빈센터의 사업내용은 주로 자연농법을 통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농법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연회(자연농협회 중국지부 협조)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월 1회 우정마을 장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솔빈센터에서 하는 일이다. 야외 캠프장, 야외 취사장, 야외 화장실을 신축하는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솔빈센터에서는 농활팀 200여명, 청년캠프 100여명, 수학여행 170여명, 기타 방문객 등을 총 150여 일간 숙식이 가능하도록 행사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만 방문객의 숙소로 솔빈센터와 우정마을의 민박을 활용하고 있으나 세면시설의 미비, 재래식 화장실의 사용 등 방문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솔빈센터의 사업일정을 보면 [표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솔빈센터의 사업 일정

| 월 | 사 업 내 용 |
|---|---|
| 5 | - 편의시설 확충 |
| 7 | - 농활 A팀(100여명) 활동<br>- 7월 말 : 수학여행 |
| 8 | - 농활 B팀(100여명) 활동<br>- 청년캠프 방문 |
| 상시 | - 자연농업교육, 한글교실 운영<br>- 러시아어 교실 운영, 풍물반 운영<br>- 마을회의 |
| 상반기 | - 우정마을 숙박 편의시설 확충 |

#### 3) 향후 목표

솔빈센터를 통해 우정마을의 자립 자활을 위한 농산물 가공 사업을 안정화하고, 비닐하우스 등 자연농법을 통한 유기농 농산물 생산으로 연해주의 유기농 시장을 개척하며, 말린 청국장 등 농산물 가공품을 통해 고려인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끄레모바 마을에 농업을 희망하는 고려인 가정을 입주시킴으로서 고려인의 정착을 돕고 제2의 고려인 정주촌을 형성하고자 하며, 비닐하우스, 시범돈사, 추가 농산물 가공품 실험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통해 고려인들의 경제력을 향상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활로를 개척하고자하는 것이 솔빈센터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 3.3 우정마을의 배치 및 주거 공간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재이주한 고려인들을 위한 우정마을은 26-28평형의 단독주택 3

가지 유형과 연립주택 1가지 유형으로 모두 4종류의 평면을 가지고 마을을 구성[5]하고 있다.

우정마을 주택은 전면 중앙에 현관이 있고 현관을 들어서면 통로 역할을 하는 홀이 있다. 홀을 중심으로 침실이 좌우에 각각 위치해 있고 홀의 끝에는 창고가 있다. 이 창고는 원래 화장실 겸 욕실공간으로 계획된 것이었으나 상하수도 설비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

화장실은 건물 바깥 뒤쪽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는 경우는 고려인들 가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난방은 페치카로 하고 있고 부엌 한쪽 바닥에는 지하실로 통하는 감자굴 뚜껑이 있다.[6]

그림7. 주택의 현관 및 내부와 외부 화장실

우정마을에서 위와 같은 가옥들은 마을 가운데 있는 큰 공원을 중심으로 도로와 함께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마을 계획에 의해 주택이 지어졌다. 우정마을은 도로를 따라 주택이 형성되는데 우정로, 아리랑로, 뚜바꼬바야로, 대한주택건설로, 평화로, 새마을로, 문화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은 주택이 33채로 러시아인 5가구, 고려인 26가구, 한국인 2가구, 문화센터 1개, 하우스 30동이 건축되어 있다.

[그림8]은 우정마을 배치 현황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7]으로 주택의 개요는 [표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우정마을 주택의 개요

| | 세대주 | 가족구성 | 주소 |
|---|---|---|---|
| 1 | 마렌꼬프 | 아내,아들 | 아리랑로 1 |
| 2 | 강알렉산드르 | 아내,아들 | 아리랑로 3 |
| 3 | 강비체슬라바 | 아내,딸2 | 아리랑로 5 |
| 4 | 취리빠힌 세르게이 | 남편,딸, 사위,손자 | 우정로 1 |
| 5 | 김 그리고리 | 아내,아들 | 우정로 3 |
| 6 | 센코프 | 아내 | 우정로 5 |
| 7 | 최 레온찌 | | 우정로 7 |
| 8 | 뗀 상학 | | 우정로 8 |
| 9 | 스또파 | | 우정로 9 |
| 10 | 한 뾰또르 | 아내, 아들2 | 우정로 11 |
| 11 | 송 슬라바 | 아내,아들,딸 | 뚜바꼬바야로 1 |
| 12 | 세르게이 모리쯔 | | 뚜바꼬바야로 3 |
| 13 | 김 스베따 | 노모,아들2,딸 | 뚜바꼬바야로 5 |
| 14 | 한 빅토르 | 아내.딸,사위, 손자,손녀, 아들,며느리 | 새마을로 1 |
| 15 | 한 비짜 | | 새마을로 1-a |
| 16 | 박 니나 | 남편 | 새마을로 2 |
| 17 | 김 스타스 | 아들,딸,사위, 아들,며느리 | 새마을로 4 |
| 18 | 이 나따샤 | 딸,언니 | 주택건설로 1 |
| 19 | 김 클라바 | | 주택건설로 3 |
| 20 | 고 아나똘리 | 아내 | 주택건설로 5 |
| 21 | 박 세르게이 | | 주택건설로 7 |
| 22 | 김 악사나 | 남편, 딸2 | 주택건설로 9 |
| 23 | 유 이골 | 아내, 딸2 | 주택건설로 11 |
| 24 | 한 발로자 | 아내, 아들2 | 주택건설로 13 |
| 25 | 김 갈리나 | 남편,딸,아들 | 주택건설로 15 |
| 26 | 말야르 | | 평화로 1 |
| 27 | 마예도프 | | 평화로 3 |
| 28 | 김 발레랴 | | 평화로 5 |
| 29 | 박 트로핌 | 아내,아들 | 평화로 7 |
| 30 | 김알렉산드로 | 아내,아들 | 평화로 9 |
| 31 | 박라직 | | 평화로 11 |
| 32 | 강 빅또르 | | 평화로 13 |
| 33 | 강 발레랴 | | 평화로 15 |

1) 가족구성에서 본인(세대주), 1명인 경우의 명수 표시는 생략.
2) 주소의 표기는 우정마을+도로명+번지수(표에서 우정마을 생략)

5) 우정마을은 연해주 정부로부터 70년간 무상임대 받은 택지 64만평에 2008년까지 주택 1000호와 유치원, 학교, 상점 등을 건립하고 농지 900만평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1차로 2000년 9월까지 31채를 완공하여 거주자들이 입주한 상태이다.

6) 이상해, 러시아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동포의 주거, 한국주거학회 국제학술대회, 2005. 5. pp.166

7) 다음 쪽의 '그림8. 우정마을의 배치현황' 은 솔빈센터에서 관리목적으로 도식화한 것으로, 논문 지면상 여백이 제한되어 있어 그림제목을 생략하고 그림만 삽입하였으며, 번호는 각 주택의 번지수를 의미한다.

아리랑로
5. 강 비체슬라바
3. 강 알렉산드르
1. 마렌 꼬프
15. 김 갈리나
15. 강 발레랴
11. 햔뾰또르
13. 한 발로자
13. 강 빅또르
9. 스또파
11. 유 이골
11. 박라직
8. 뗀 상학
7. 최 레온찌
공 원
9. 김 악사나
9 김알렉산드로
우정로
5. 센 고프
대한
주택
건설로
7. 박 세르게이
7. 박 트로핌
평화로
뚜바꼬바야로
3.김그리고리
5. 김스베따
3. 세르게이 모리쯔
1. 송슬라바
5. 고 아나똘리
5. 김 발레랴
1. 취리빠힌
세르게이
2. 박 니나
4. 김 스타스
3. 김 클라바
3. 마예도프
1. 이 나따샤
1. 말야르
새마을로
1. 한 빅토르
1-a 한 비쨔
솔빈문화센터

우정마을의 주택들은 특별히 남향을 고려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남향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없었다.[8] 또한 주택의 평면구조가 유사한 대신 주거 배치의 형태를 다양화 하고 있고, 주택마다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서 전체 대지는 대체적으로 넓게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 우정마을 만들기와 운영 실태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 정착을 위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지원(정부 또는 민간단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유기적 협조, 장기적인 투자와 관심이 러시아정부와의 외교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함은 물론이고 발 빠른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재는 동북아평화연대에서 고려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과 인적구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따라서 우정마을의 활성화를 통하여 고려인들의 마을리더육성과 농업활성화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기반이 확립되어야 하며, 각종 농업정책과 농축산교육 프로그램 등 고려인들의 연해주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고려인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러시아 연해주의 기후와 환경에 대응하고 고려인에게 적합한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고려인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삶이 담길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와 주민참여를 통해 연해주의 특성을 고려한 마을 만들기 연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연해주에서 살아온 고려인의 문화와 생각이 담긴 마을 만들기가 고려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고려인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증가하는 방문객을 위한 체험마을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의 지속적인 탐방과 민박을 통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이것을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우정마을의 변화와 추진과정에 대해 지속적이고 연차적인 마을만들기 연구가 진행되어 고려인 정착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기초 자료 정립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8) 계획의 수립 단계시 한국의 후원업체인 대한건설협회에서 3개 타입의 도면을 제공 받아 현지에서 전문가 없이 계획, 건축,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이다.

## 참 고 문 헌


1. 김 세르게이 에라스토비치, 블라디보스톡의 다민족 건축과 설계 내용을 통하여 본 한인촌(1860-1922), 한국주거학회 국제학술대회, 2005. 5.
2. 김 게르만, 한인(고려인)의 카자흐스탄 정착의 유래, 한국주거학회 국제학술대회, 2005. 5.
3. 이상근,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집문당, 1998.
4. 이상해, 러시아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동포의 주거, 한국주거학회 국제학술대회, 2005. 5.
5. 조재순 외,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 정착촌으로 재이주한 재소한인 가족의 주거생활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권 3호, 2003.
6. 동북아평화연대 홈페이지 http://wekorean.or.kr


(接受: 2007. 5.16)